



보도 일시	2022. 2. 17.(목) 16:30	배포 일시	2022. 2. 17.(목) 16:00
-------	-----------------------	-------	-----------------------

담당 부서	경제구조개혁국 인구경제과	책임자	과 장 나윤정 (044-215-8570)
		담당자	사무관 김형구 (hgoo999@korea.kr)

「제4기 인구정책 TF[전담팀]」 출범 회의 개최

- 4대 분야, 3단계 추진전략 중심으로 제4기 인구정책 TF 운영 -

-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17(목) 14:00,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를 개최하였음
- 지난 2.10일 비상경제중대본에서 확정된 제4기 인구정책 TF 4대 분야*, 3단계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 * ①생산연령인구 확충, ②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③고령사회 대비, ④초저출산 대응
- ** 인구구조 변화 충격의 현실화 가능 시점에 따른 시급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대응시기를 단기(5년내 대응시급), 중기(10년내 성과 필요), 장기(10년후 충격 가시화) 3단계로 구분
- 4기 인구정책 TF 운영계획, 작업반별 주요 과제 및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고, 1~3기 인구정책 TF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음

<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 개요 >

- 일시: '21.2.17.(목) 14:00~15:30
- 장소: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 참석자 : 기재부 1차관(주재), 인구정책 관련 관계부처 실국장 등

- ※ (별첨1)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 (별첨2) 제4기 인구정책 TF 구성(안)

< 인사말씀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덕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부처 실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그간 인구정책 TF 평가 및 정책환경 >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9년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출범하고
작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TF를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 * (1기 TF) ‘19.4월 출범 → ‘19.9~11월, 4개 전략·20개 과제 순차 발표
- (2기 TF) ‘20.1월 출범 → ‘20.8월, 4개 전략·11개 과제 발표
- (3기 TF) ‘21.2월 출범 → ‘21.7월~12월, 4개 전략·12개 과제 순차 발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 중심에서
출산율 제고와 적응력 강화를 병행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생산연령인구 확충, 축소사회 및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경제·사회 전분야에 대한 적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구정책 TF를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의미있는 정책대안도 제시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합니다만,
지난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총인구는 '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년 기존 전망보다
감소시점이 8년이나 단축되었습니다.

향후 5년간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은 177만명으로
기존 전망(152만명)보다 악화(△25만명)되고,
단기간 내 학령인구·병역자원이 급감하며,
베이비붐 세대(710만명)의 고령층 진입으로
급격한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 전망이 크게 악화된 바
단기적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은 더욱 심각할 전망입니다.

* 직전추계 대비 합계출산율 최저수준 하락('21년 0.86명 → '24년 0.70명)

< 제4기 인구정책 TF 추진방향 >

이러한 위기상황을 반영하여
올해에도 「제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4기 TF에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18개 정부부처와
경인사연·KDI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 인구정책연구단,
그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제4기 인구정책TF」에서는,

여성·외국인력·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신기술분야 청년인재 양성 등 생산연령인구 확충,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대응, 지역소멸 대응 등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고령층 의료·돌봄 강화,
노후소득 보장 등 고령사회 대비와 함께

코로나19로 악화된 저출산 추세 단기간 반등을 위한
초저출산 대응도 포함한
4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 심화 시점이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응시기를 단기(5년내 대응시급), 중기(10년내 성과 필요),
장기(10년후 충격 가시화) 3단계로 구분하고,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당부사항 >

제4기 인구정책TF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인구정책연구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긴밀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업반장을 맡은 주관부처는 작업방향·계획 수립,
추진전략 마련 등 주도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구정책연구단에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핵심과제 우선순위 도출, 논의과제 발굴·구체화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장래인구추계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저출산 장기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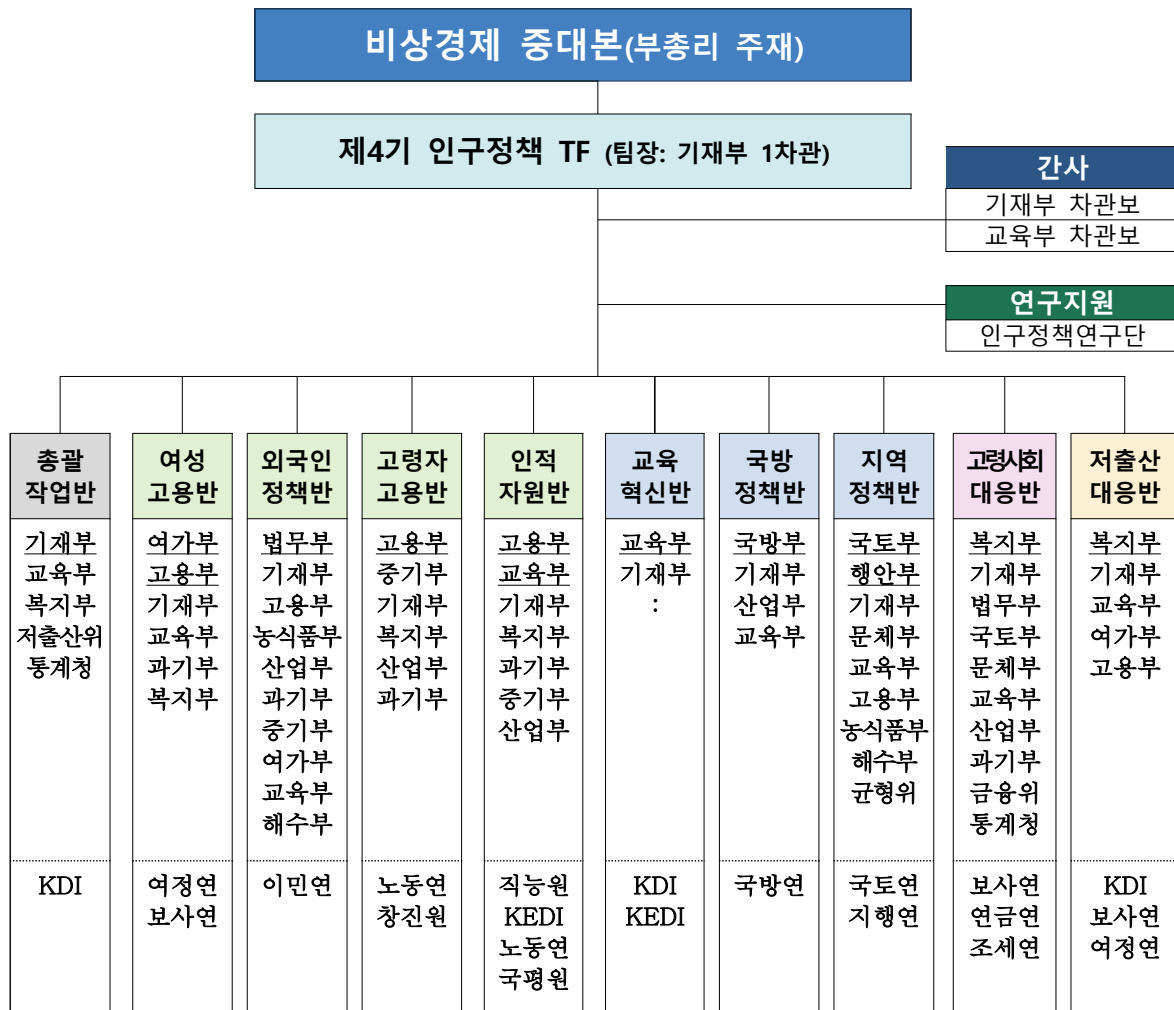
따라서, 4기 인구TF에서도
관계부처가 긴박감을 가지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TF 구성원들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2

제4기 인구정책 TF 구성(안)

- **(구성)** 관계 부처,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TF 구성
 - (작업반) 총괄작업반, 여성고용반, 외국인정책반 등 총 10개
 - (간사) 기재부 차관보, 교육부 차관보 공동 간사
- **(작업반장)** 단독주관은 참여부처와 협력하여 작업반장이 대책 마련, 공동주관은 작업반 성격별로 역할 분담하여 대책 마련



※ 밑줄부처는 해당 작업반 주관부처, 작업반 구성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